

결혼 안하는 대한민국... 혼인건수 사상 최저

지난해 전국 26만4500쌍 결혼... 전남 8049쌍 최하위권 이혼율 광주 ↓ 전남 ↑ '결혼 20년 이상' 중년이혼 31%

지난해 결혼한 커플이 43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 치솟는 집값, 인구 절벽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말하는 조(組)혼인율의 경우 전북을 제외하면 전남이 가장 낮았다.

◇광주 7141쌍·전남 8049쌍. 지난해 결혼=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광주지역 커플은 7141쌍이었다. 1년 전 7468쌍보다 327쌍이 줄어든 것으로, 시·도별 통계 집계가 이뤄진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전남지역 결혼 커플 8049쌍도 전년(8554쌍)보다 505쌍 줄었다. 결혼 커플이 8000쌍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통계 작성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6만4500쌍이 결혼, 1974년(25만9600쌍) 이후 가장 적었고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말하는 조(組)혼인율도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 남성 초혼 연령 높아=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2.9세, 여성은 30.1세로 전년도에 견줘 남성은 0.2세, 여성은 0.1세가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도에 비해 0.1세 오른 33.1세, 여성은 0.2세 오른 30.3세였고 전남은 남성 33.1세(전년도 32.9세), 여성 29.8세(/ 29.5세)로 나타났다. 평균 재혼 연령은 전남지역 남성이 49.1세로 서울·부산·강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혼 커플, 광주는 줄고 전남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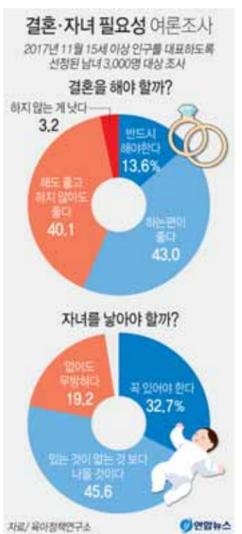
=이혼 커플은 10만6032쌍으로 1년 전(10만7328쌍)보다 1296쌍(1.2%)이 줄었다. 광주의 이혼 커플은 2694쌍으로 전년도(2817쌍)보다 4.4%(123쌍) 줄었고 전남에서는 4008쌍이 이혼, 1년 전(3965쌍)보다 1.1%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337쌍)이 차지하는 비율이 8.4%로 서울을 다음으로 높았다.

황혼 부부의 이혼도 두드러졌다. 전국 이혼 커플 중 2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진 커플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진 커플도 10.9%에 달했다. 다른 이혼 커플들은 전년도에 견줘 줄었지만 이들 황혼 커플들은 늘었다.

남성의 나이가 더 많은 '연상연하 커플'은 지난 2007년 18만9000쌍이었지만 지난해는 13만8000쌍으로 줄었다. 지난해 결혼식이 가장 많이 열린 달은 12월(10.4%)이었고 1월이 6.6%로 가장 적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4.97 (-0.55)	↑ 금리 (국고채 3년) 2.29% (+0.01)
↓ 코스닥 885.55 (-4.85)	↑ 환율 (USD) 1072.30원 (+3.70)

효성, 정부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여

조현상 사장 동행...한국기업 중 현지 최대 투자업체

오는 22일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조현상(사진) 효성 사장이 동행한다. 효성에 따르면 조 사장은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꾸려진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동행한다. 조 사장은 국민만찬과 교포 환영회에도 참석한다.



효성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을 복합 생산기지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관련 계획을 추진해왔다.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호찌민 시 인근 연짜 공단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후 지금까지 15억달러를 투자, 연짜 공단 내 한국 기업으로는 최대 투자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해부터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우성에 13억달러를 투자해 폴리프로필렌 공장도 건설하고 이월 탈수소화공정(DH)시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저장탱크 건립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섬유, 산업소재에 이어 화학, 중공업 투자도 진행하는 등 현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게 조 사장 구상이다. 효성은 이 같은 베트남 투자 확대를 국내 생산기지의 수출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30만t 규모의 증설을 완료한 울산시 용연 프로필렌 공장을 고부가가치 제품인 파이프용 PP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고 베트남에 신설하는 프로필렌 공장을 일반 제품 생산공장으로 이월 필렌 공장과 이를 위한 탈수소화공정



광주은행,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1위

이미지·이용가능성·선호도 높은 평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최근 한국농림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8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브랜드의 인지도와 로열티를 지수화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로 전국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조사를 실시해 222개 산업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부문 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다른 은행에 다소 뒤졌으나 브랜드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총성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방은행 부문 조사에서 1위에 선정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1위에 선정돼 영광이다"며, "창립50주년을 맞아 제정된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의 슬로건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의미에 우수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광주·전남과 함께 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파국 치닫는 금호타이어... '중재자'가 없다

노동계는 매각 반대·재계는 수용 촉구... 더블스타 오늘 기자회견

지역사회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놓고 쪼개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해외매각 반대=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8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유스퀘어, 양동시장, 금남지하상가 등에서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시인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24일에는 전 조합원 총파업을 벌인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광주 전남공동대책위원회도 21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시위를 갖고 '노동기본권마저 팔아넘기려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며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더블스타 매출액은 2011년 1조 700억에서 2015년 5081억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5123억 수준으로 역성장이 확실시되는 등 매출액 수치가 금호타이어보다 급격하게 하락곡선

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더블스타 부채비율도 지난 2014년 101.81%에서 2017년 3분기 180.27%로, 부채총액 역시 4325억에서 8541억으로 급상승했다"고 우려했다.

민중노총도 전날 성명을 내고 "노조 사전 동의 없이 '파업 미준제'를 선행계약 조건으로 중국 더블스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반노동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 법정관리 막고 해외매각 받아들여야=금호타이어 일반직 직원들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정 관리 반대와 해외자본 유치 찬성'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에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광주·곡성공장 사무직 100여명과 서울 사무직 200여명, 영업직 100여명, 용인 중앙연구소 연구원 150여명 등 전체 사무직 1500여명(해외파견 포함) 중 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또 '외자유치 찬성'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광주공장을 행진한 뒤 주시청, 광주시의회, 민주당 광주시당도 잇따라 방문해 해외자본 유치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일반직 직원 대표단은 "최악의 선택인 법정관리가 해외매각보다 낫다는 노조의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노조는 하루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 자구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는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해외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장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해외자본 유치 및 대안이 없음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현명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의 차이운선(柴永森) 회장은 22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와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일반직 직원들이 2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사측의 해외자본 유치에 찬성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TÉLÉSIS Paris

텔레스이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스이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고정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자이너 & 브랜드 운영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